

# 시설 현대화로 군살을 없앤 구시축산



▲구시축산 임성주 사장

**점** 차 무창돈사가 늘고 있다. 이미 닭 사육농장에서는 이미 일반화가 되어있는 무창축사가 돈사에까지 점차

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창문하나 없는 무창돈사는 완전 현대식 시설에 의해 돈사의 온도와 환기를 프로그램대로 자동적으로 기계가 맞춰주며, 가축들은 계절이나 기후·기상에 상관없이 항상 가장 적절한 환경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다. 적지않은 시설자금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무창돈사와 현대식 돈사시설을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남단에 위치한 구시축산이다.

## 무창돈사로 확실한 이유일령 단축

영암 구시축산 임성주 사장(만37세)은 '80년에 양돈을 시작하여, '86년부터 종돈장을 운영하였으며, '95년 4월에 지금의 최신시설을 갖춘 구시축산을 설립,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완전무창돈사인 구시축산의 내부시설은 네덜란드 하인 시스템을 도입·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Lagoon'이라는 2,000t 규모의 거대한 뇨저장탱크(액비탱크)를 영국에서 수입, 축사한편에 위치시키고 있어 분뇨처리 문제를 해소하는 등 어떤 농장보다도 완벽한 돈사시설을 갖추고 있다.

완전 현대화된 돈사는 직원들의 작업량을 줄어든게 하여 3명이란 적은 인원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며, 고온에 의한 성장지연과 겨울철 추위에 의한 생산성 감소를 줄일 수 있게도 해 준다.

## 사무실의 PC를 통해 언제든지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돈사내부 온도의 정확한 관리가 이유일령 단축의 주요인이 된다. 이것은 곧 출하일령의 단축과 모돈 회전율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자돈의 철저한 온도관리는 물론 비육사에서 조차 출하시까지 10마리씩 방마다 주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고른 돼지를 생산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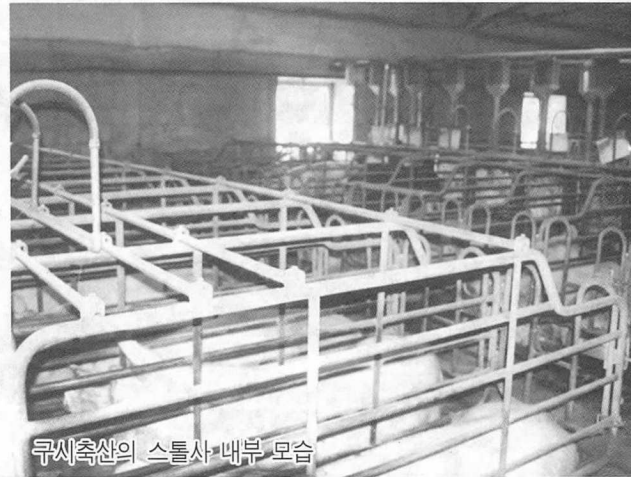
하지만 무엇보다 시설자동화, 특히 무창돈사의 장점으로는 제일먼저 이유일령의 단축을 들 수 있다. 빠르면 13일까지도, 보통 15일 정도에서 이 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구시축산의 돼지가 높은 품종인 돼지 덕도 있지만 사무실의 PC를 통해 언제든지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돈사내부 온도의 정확한 관리가 이유일령 단축의 주요인이 된다. 이것은 곧 출하일령의 단축과 모돈 회전율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임성주 사장은 '86년부터 양돈장을 해 오면서 외국에서 본 경험에 의해 무창돈사의 꿈을 키워 왔다가 '95년 구시축산을 설립하면서 거의 90%에 달하는 내부기자재들을 수입해 820평 돈사를 평당 15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자금을 들여 신축했다. 하지만 임사장은 더 이상 수입기자재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국산기자재들의 품질이 수입품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최근 IMF로 환율이 상승한 상황에서 굳이 비싼 외국 기자재들을 수입해 쓰지않고 국산자재를 이용해 평당 80만원 가량으로 돈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를 다른 양돈가들이 참고로 하여주길 바랐다.

임사장은 양돈인들의 무창돈사 설치를 권장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출하일령의 단축과 더불어 항생제 사용 절약과 백신위주의 질병방역을 통해 1년이면 무창돈사의 추가비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사계절이 뚜렷해 기온, 습도 차가 큰 우리나라가 무창돈사시설이 꼭 필요할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급속도로 무창돈사가 확산되고 있는 추



세이나 새로이 돈사를 짓는 양돈장은 전문가나, 성공적인 농장을 두루 둘러보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이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무창돈사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무창돈사의 기준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유감스러운 점이 크다고 하며, 무창돈사 시설, 관리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들은 첫째 단열문제, 둘째 환기이며, 셋째 내부시설 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항생제 잔류문제, PSS돈이 없는 양돈장

순종은 순종대로 사육되어야 한다. 일반종돈장에서 원종(GGP)과 순종(GP)과 비육돈(F1)이 모두 사육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임사장은 말한다. 또한 임사장은 질병문제를 없애고 질 높은 품종의 중돈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순종은 순종대로, 모돈은 모돈대로, 비육돈은 비육돈 끼리 사육하여 분업화를 통해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져

서 균일화된 돼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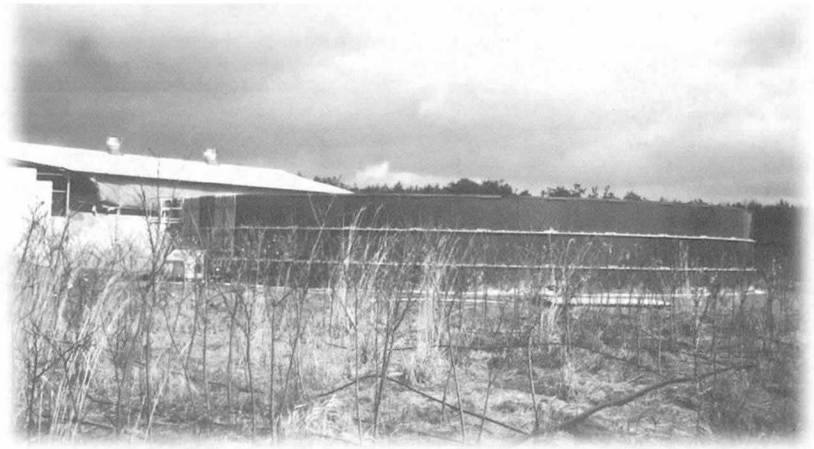
임사장은 IMF 한파속에서 구시축산 또한 적지않은 타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IMF 상황이 시작되면서 높은 가격의 사료로 키운 돼지들이 이제 5월부터 출하되나,

두당 2만원의 이익도 바라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허허로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하지만, 이미 적절한 대책을 세워놓은 상황이며, 사료값 인상과 함께 나빠진 사료의 질에 대해 한마디 나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앞으로의 종돈개량 방향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구시축산 임성주 사장은 '등지방은 너무 얇지 않은 15~20mm 정도 수준, 초산차 이유두수 10두 이상으로 PSY 25두를 맞추고 15일의 이유일령으로 모든 회전율을 2.5회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종돈장 위생등급제 평가에 타 양돈장보다 청정·청결하다는 자



▲2000톤 규모의 거대한 뇨저장탱크 lagoon(리곤)

부심속에서 방역·위생 우수 종돈장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농림부는 방역·위생 우수종돈장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구시축산 임성주 사장은 모든 종돈장들이 모두 위생 등급제의 적용을 받아 종돈장의 질병발생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렇게해서 PSS돼지를 줄이고, 항생제 잔류문제를 말끔히 없애 돈육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가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양돈업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GGP사업체 3~4곳이 있으나, 구시축산은 이미 구시축산 GGP사업부를 모태로 민간자본에 의해 경남, 전

남지역에 4개의 GP농장을 계열화체제로 구축하여 GGP사업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GP농장들은 무창돈사 시설로 '97년 신축된 것이다. 구시축산은 또한 경남 함천에 위치한 종돈장인 풍원종축과 더불어 한국 최초의 종돈장 연합체제로 '(주)한국GP육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돈업의 전산, 사양, 수의, 육종, 경영 관리체계 등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양돈 생산관리의 일괄처리 보급으로 선진양돈의 틀을 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재 : 조진현〉**養豚**



▲최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한국 G·P육종 앞에서.(좌로부터 (주)한국G·P육종 대표 전형무씨, 임성주 구시축산 사장, 최종대 풍원종축 사장)